

'세월호 참사' 추모시

국상(國喪)

유 자 호 (시인)

불쌍한 나의 아가야
 운명의 그날 2014년 4월 15일
 배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다녀오겠다며 인사하고 떠났던 네가
 다음 날 아침 배가 기울어지자
 선실에 있으라는 어른의 말에 선실에서
 쓰러지지 않으려 구석에서 버티다
 구명동의를 입으라는 어른의 말에
 구명동의를 허둥지둥 찾아 입고
 또 선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어른의 말에
 더욱 더 기울어지는 선실에서 그래도 침착하게 견디던 네가
 마침내 배가 거꾸로 뒤집어지고 거센 바닷물이 덮칠 때
 얼마나 놀랐나 무서웠나 기가 막혔나
 그날 이후 엄마 아빠의 삶도 끝났다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
 네가 보내온 '사랑한다'는 외마디 문자를 보고 또 보며
 통곡하고 통곡하다 실신하기 여러 번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이제는 목욕탕 물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환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
 다시 태어나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위험한 매일수룩 어른의 말을 듣고 질서를 지키야 한다는
 그 가르침마저 뼈저리게 한스럽고 원망스럽다
 어린 너희들, 선생님들, 또 다른 승객들이
 물에 잠겨 유명을 달리 하던 날
 대한민국도 물에 잠겨버렸다
 나라는 지금 국상중이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
 차라리 자연 재해였다더라면...
 전쟁이 나면 왕이, 대통령이 백성을 버려둔채 먼저 도망을 가고
 사고가 나면 기관사가, 선장이 승객을 버려둔채 먼저 도망을 가고
 사고, 또 사고가 나도 고쳐지지를 않는
 인간의 가장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아비한 인간들
 돈만 아는 더러운 인간들
 부끄러워라 대한민국아
 야수들이 설치는구나 대한민국아
 물살 세기로 유명한, 칠혹같이 캄캄한 서해 바다 속에서
 얼마나 추웠나 불쌍한 아가
 이 죄는 선장 아무개, 선원 아무개의 죄만이 아니라
 어린 너희를 지키지 못한
 대총대총 밥버러지도 살아온 어른들의 죄며
 바로 이 아빠와 엄마의 죄며 나라의 죄다
 기적처럼 태어났으니 기적처럼 돌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었던간
 차디찬 물속에서 건져져
 이번에는 뜨거운 불 속에서 태워지다니
 어린 내 꿈이며 가슴 설레어하던 이성 친구며
 함께 재잘대던 네 친구들을 모두 떠나서
 어린 내가 연기로 화해서 사라지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것이란 말까
 아가 우리를 용서말거라
 이 시간만큼은 내세를 믿고싶다
 부디 내세가 있어 그곳에서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세끼 내 자식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 수 있다면

1947년 부산 출생, 구상기념사업회 회장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



“동체대비 생활화, 붓다 되는 길”

조계종 교수아사리 스님 '붓다관' 주제 정기 포럼

“스스로 붓다임을 알고 행동하면 그가 바로 붓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4월 24일 '붓다관'을 주제로 열린 제6차 교육아사리 정기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람은 본래 붓다이다. 붓다의 가르침대로 실천해야 불교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가 누구든 언제 어디에서나 매순간 순간 붓다의 행위를 하면 그가 바로 붓다이다.(도법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붓다관'을 주제로 제6차 교육아사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깨달은 사람의 붓다의 삶은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삶”이라며 “그 삶과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 실현되도록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인류의 보편적 스승이 되고 인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전도몽상과 미망에서 깨어나면 본래 사람이 중생 아닌 붓다”라며 “그럼에도 누군가가 굳이 다시 붓다가 되려 한다면 그것은 소를 타고 있으면서 다시 소를 찾는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붓다의 행위에 대해 “당장 마음먹고 상대를 진실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즉각 진실한 사람이 된다”며 “일찍이 붓

다는 스스로 그렇게 살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했듯이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 은 생애를 바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죽음을 다해 또 하고 또 하면 그 순간 즉각 그대로 된다”며 “지금 당장 마음먹고 매 순간순간 전존재를 바쳐 본래붓다의 동체 대비행을 또 하고 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현 시대의 붓다관에 접목시키려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화정코리아 100일 순례를 이끌고 있는 도법 스님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순례단과 고민해 봤지만 추모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면서 “이미 소를 잃은 상황이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불교계 스스로 근원적인 성찰을 통해 생명평화의 삶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생명윤리학회 대표 법음 스님은 “가라앉은 배는 기도한다고 떠오르지 않는다”며 “불교계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현견 스님은 “세월호 참사는 큰 틀에서 보면 사회 가치관의 문제”라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돌아오면 이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불교적 입장에서 바른 생각과 마음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각목 스님이 '초기 불교의 붓다관', 현석 스님이 '대승불교의 붓다관', 영석 스님이 '선불교의 붓다관', 금강 스님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붓다상'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자대상 수상자 김동건·랭카스터·선우용여

선정위 25일 결과 발표 5월 6일 법요식서 시상

불기 2558년 조계종 불자대상에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와 루이스 랭카스터 UC 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 탈린트 선우용여가 선정됐다. 외국인인 불자대상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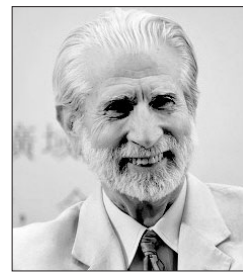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5일 '불기2558년 불자대상' 수상자들이 같이 선정, 발표했다.

불자대상 선정위는 “김동건 대표는 사회 각계 불자 지도자들의 대화적 활동 확대와 불교의 대화적 위상 강화에 기여했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헌신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 갈등의 통합과 조정에 힘써왔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동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장, 참여불교 재가연대 대표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김동건



랭카스터



선우용여

바른 명예대표 변호사, 불교포럼 상임대표,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불자대상에 선정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에 대해선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으며 대장경의 전산화, 불교문헌자료의 전자화에 기여했다. 또 버클리 대학 내 불교학 박사과정을 창설하는 등 한국불교를 세계로 알리는 데에 공헌했다”고 밝혔다.

탈린트 선우용여씨에 대해서는 “BTN불교

TV에서 방송을 통한 포교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2012년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위촉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여성 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4월 승려복지회 승보공양운동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승려노후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발표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불교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자승 스님 종지협 의장 재선출 8월엔 교황 접견 예정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대표 의장으로 선출됐다.

종지협은 4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4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1대 공동대표 의장에 자승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자승 스님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표 의장에 오르면서 2016년 5월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사회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서정기 유교 성균관장 등 공동대표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교지도자들은 개회에 앞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실종자들의 무사생환과 사망자들의 명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천도교 박남수 교령과 유교 서정기 성균관장의 공동대표 인준 또한 이뤄졌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 사회 대표적인 7개 종교 수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종교인명화회의 대표 회장에 취임하기도 한 자승 스님은 오는 8월 방한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할 예정이다. 회동은 8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한국종교인명화회의 공동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배현진 기자

“노동자 대접 받도록 불교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노동위, 24일 노동자 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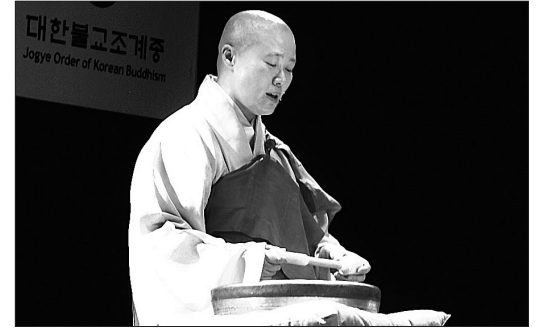
“약기가 노동자들의 착취로 만들어진다던 그 약기는 결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2721일, 햇수로 7년째 부당해고에 맞서 거리투쟁을 하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사회적 지지를 호소했다.

노동위는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콜트콜텍 기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화제 ‘마음의 소리’를 개최했다.

종호 스님은 “지금까지 투쟁해 온 노동자분들께 경의와 위로를 전하드리다”며 “노동이 노동으로 대접받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조계종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무사생환, 콜트콜텍정리해고 노동자 복직을 염원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또한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생, 조계종 노동위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회심곡을 불렀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 종호 스님이 4월 24일 열린 콜트콜텍 노동자를 위한 문화제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회심곡을 부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정대행 석도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문	석암두	원로원원장	석법령	총회회장	석무송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해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총무원장	석청강	서울중앙총무원장	석설정	예천중앙총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총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총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총무원장	석재현		
아포중앙총무원장	석혜천	충북중앙총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총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총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총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총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총무원장	석일현	제주중앙총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총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총무원장	석정우						
총무부장	석도홍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총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법천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창종주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총무원포교국장	
회장	학산(이종길)	포교국장	석지명
부회장	진불심(이순신)	포교국장	석법성
총무	심진화(차영란)	포교국장	석성운
임원	대도심(어월순)	포교국장	석해공
임원	법화심(김막두)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충남원장	보인	충무국장	혜명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대전원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제주부장	자은	포교국장	청운
■각 총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복지국장	석운용	의식국장	석운담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건성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역경국장	석청허
		교화국장	석지허
		조사국장	석담월
		감찰국장	석성도
		홍보국장	석동운
		지도국장	석정도
		호계국장	석원호
		재무국장	석도담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